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설립기념주일 : 오늘은 청파교회 설립 1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공감음악회 : 오늘 오후 1:30 공감음악회가 열립니다.
떼제기도회 : 이번 주 수요일저녁집회는 떼제 기도회로 모입니다.
간담회 : 평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세월호 유가족과의 간담회가 다음 주일 오후 2:30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구호헌금 : 큰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네팔을 돕기 위한 구호헌금을 다음 주일에 드립니다.
초록장터 :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초록장터가 5월 17일에 열립니다. 이 옷과 나눌 의류, 도서, 장난감, 가정용품 등을 초록가게에 보내주세요.
사과분양신청 : 생협에서 사과나무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가격은 135,000원(택배비 포함)이고, 8월말부터 사과 5박스과 사과즙 1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실천 : 네팔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그들을 위해 구호금을 보냅니다.

다음 주 설교 본문			
1부	행 10:44-48 / 시 98	2부	
예배	요일 5:1-6 / 요 15:9-17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박홍재 광권희 정연희 한상경 김태정 신영희 윤성종 최철수
 다음 주 식당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김현주 김문주 이한님 조우석 한성건
 오늘설거지봉사 : 5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 2여선교회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 초 등 부	10:50	교 육 관	성서학당	13:30	교육관
중 고 등 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수요성경연구	19:30	교육관
토요일성경읽기	10:30	세미나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 교회 설립 기념 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9. 하늘에 가득 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07년 전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에 빛 되신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여러 신앙 선배들의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감에도 감사합니다. 여전히 황폐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푸른 언덕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
 자기 삶의 터전이 흔들리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과 집, 일상과
 안정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거친 들판에서 잠을
 청하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무너진 건물들과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히12:2,3 인도자

♣ 교 독 문 35. 시편84편 다 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목회기도 김기석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10. 시온성과 같은 교회 다 함께

♣ 성경봉독 I. 행8:26-40 요일4:7-21요15:1-8 권하영 선생
 II. 엡4:1-7 김현주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오 아름다운 주의 성전 찬양대

말 씬 I. 김기석 목사

..... II. 하나 됨의 용기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석남	강순배	강인식	김정숙	고숙이	김금순	김기석	김희우	김명화	오형일
김세진	김애경	김애경	김윤수	박상호	김인걸	문영혜	김인석	이선화	김일량
이은옥	김재흥	최희영	김정진	김해정	김주영	노우영	김중수	이순정	김지윤
정영우	김철수	유영남	문홍일	민지희	박미연	박범희	박미영	박상규	박상욱
박예림	박옥순	박옥식	박인혁	박준희	이기분	방문성	박해경	방민	송형운
하미림	신영희	신정훈	이은미	신진식	변해정	안길상	이형숙	안정숙	우순덕
유성근	안상남	윤성종	김윤정	이경남	이광석	이경희	이왕준	송상경	이용현
이우엘	이유선	이은실	이주경	이지훈	이진영	한양미	이찬희	이치림	강상연
임고운	오재형	임서영	임승동	백해숙	임영	정영례	임주빈	최현옥	장재영
김재영	장해정	정완수	김재광	조병무	송양진	주경진	이윤정	최종원	최지현
최형균	강경화	추현영	하현철	최성애	한상균	한상익	정영선	허성호	진은혜
허신열	홍소형	홍순복	황경순	황원순	황자순				

감사헌금

김상현	유지선	김용규	송명	김재흥	최희영	김준호	곽해자	김진중	김태정
김현동	오유경	신영희	신진식	변해정	양재민	안보혜	이숙자	이숙자	박철국
이왕준	송상경	이은혜	이정은	홍예선	무명13				

생일감사헌금

조준수 이소영

녹색꿈헌금

김향자 박숙미 신영희 윤미경 윤수진 이재문 홍순구 안홍숙

황현성 이오복 무명4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백해숙	박성희		
안디옥	신진식	최경미		
가나안	장영숙	신영신		
베다니	박홍재	박홍재		
시온	권미숙	박미영		
에베소	김금순	김금순		
빌립보	곽권희	윤수진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김경혜	홍춘숙		
다메섹	박해경	박해경		
두란노1	김재흥	오자영		
두란노2	김재흥	송형운		
두란노3	이범석	이진영		
두란노4	이범석	곽상준		
두란노5	신진식	이오		

■ 마음으로 읽는 글

무언가 찾아올 적엔

서울 콘크리트집 마당에 서 있는 산초나무 케어
 시골 텃밭가에 옮겨 심고 돌아왔다
 애초에 산초나무가 왜 날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밤이면 나란히 앉아 달 쳐다보며 지냈다
 그 몇 해 동안에 내 눈빛 가져갔었나
 그가 없으니 눈 침침하여 하늘이 흐려 보였다
 한철 뒤 시골 텃밭에 가서 말라죽는 산초나무 보다가
 무언가 찾아올 적에는 같이 살자고 찾아온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다시 케어 서울 콘크리트집 마당에 옮겨 심었다
 그날 밤 달 향하여 산초나무와 같이 앉았더니
 홀연히 내 눈이 밝아져서 잎사귀에
 달빛 빨아들여 빛는 향기도 보이는 것이었다

하종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장로 : 한완식 윤석철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새교우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목표 아래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 함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공감음악회	낮 집회 / 설교: 김기석 목사
	저녁 집회 / 떼제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박홍재 장로	김동호 선생 박석희 집사

5	영접위원	김정민 김종락 최재욱 박영신 이수정 이현순
	헌금위원	한완식 박미영

믿음으로 읽은 글

청파교회의 설립

1908년은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는 비운의 시기였기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믿음의 선각자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서울 외곽의 소외된 지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연화봉교회(옛 청파교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당시의 교인들은 국운이 기울어가던 시기를 오히려 전도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파악했다. 연화봉 지역(지금의 서부역 남부)의 교인들은 우선 한 교인의 집에서 집회를 시작했다. 이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벌이던 상동교회는 전도인을 파송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

상동교회의 역사책에 기록된 연화봉교회의 개척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우리 교회가 1907년부터 1913년까지 7년간 서울 근교에 무려 6개 처소에 선교부의 도움이 없이 순전히 우리 교회의 힘으로 지교회를 세웠다. ... 우리 교회가 이때에 세운 지교회들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계속 발전해가고 있다. 처음 세운 지교회는 해아밀사사건이 일어났던 1907년인데 이해에 무려 두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다. 그 하나는 지금의 공덕동교회요 또 하나는 지금의 세검정교회인 창의문교회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08년에는 지금의 청파교회가 된 연화봉교회이다.

이필주 목사와 양우로더(세례명 로다를 발음대로 표기)도 연화봉교회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이 기록들은 상동교회 개척에 관한 좀더 자세한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필주 목사는 1927년에 발행된 <승리의 생활>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1907년 봄에 청파에 기도방이 설립되니 나는 저녁마다 한서(寒暑)를 불고하고 다니며 전도하여 마침내 교회가 설립되고...”

양우로더는 연화봉교회 설립의 실질적인 주역이었다. 결혼에 실패한

후 동생 양재창의 권유로 상동교회에 출석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양우로더는 연화봉 지역에서 전도활동을 전개하다가 연화봉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를 소개하는 <기독신보>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구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19세에 출가케 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의 그릇으로 쓰시려는 부르심이던지 그는 인생의 낙이라는 가정의 따뜻한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심히도 불행하게 가정생활을 떨쳐버릴 수밖에 없이 되었다. 그후 씨는 그 오라버니의 인도로 예수를 믿게 된 후 남매가 협력하여 지금에 있는 경성 연화봉교회를 설립하고

연화봉교회가 설립된 직후에 양우로더에 의해 연화봉여학교도 설립되었다. 양우로더는 여자 교육의 절실함을 깨달아 학교를 설립했다. 그의 동생이 연화봉여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재정적으로 크게 도와왔고, 스크랜턴 대부인을 비롯한 여선교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연화봉교회의 설립을 전하는 <기독신보>는 연화봉여학교의 설립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남매가 협력하여 지금에 있는 경성 연화봉교회를 설립하고 한편으로는 여자교육을 굳게 결심하여 처음에는 3,4명의 여자를 데리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여 가진 성역을 다한 결과 교회와 학교가 날로 흥왕케 되었다.

1924년에 열린 미감리회 여선교회 총회는 특별히 해외선교를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선교지는 만주로 하기로 하였고, 여선교회에서 직접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해 활동하게 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미감리회의 제1대 여선교사로 선발된 인물이 양우로더이다. 양우로더는 불모지에 불과하던 만주의 여선교회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3년 만인 1928년에 귀환하였다. 서울에 돌아온 양우로더는 자신이 설립한 연화봉여학교가 경영난에 빠져 폐교 직전에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전도부인직을 내놓고 학교를 살리는 일에 매달렸다. 양우로더는 자신의 사재를 학교에 모두 회사하였고, 오직 학교 발전만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다가 1943년 6월 6일 별세하였다.

- 「청파교회 100년사」 중에서